



경상남도
느티나무

나무를 자르려던 톱자국이 있는 느티나무

		
지정번호	거창-12-48	경남 거창군 웅양면
지정년도	1982	산포리 1837-1
관리기관	거창	35° 48' 50.04" N
수령	1,043년	127° 55' 27.99" E
수고	24m	
흉고둘레	6m	

석정마을에서 산포마을로 들어갈 때 맞이하는 보호수(거창-12-48) 느티나무는 마을의 앞, 즉 마을 입구 도로 옆에서 자라고 있다. 느티나무 옆에는 돌을 쌓고 정자를 세웠다고 해서 돌정이라 불렀다. 지금은 예전과 약간 달리 돌을 쌓아놓기만 하였으며 그 옆에 새롭게 정자를 지어놓았다. 석정마을 이름은 이 돌정에서 유래하고 있다. 느티나무의 나이는 1,043년으로 추정된다. 나무높이는 24m, 가슴높이둘레는 600cm, 밑동둘레가 785cm 정도이다. 나무갓은 너비가 23m 정도이다. 원줄기는 높이 3m 정도에서 굽은 가지가 여러 갈래로 갈라졌고, 그 위쪽에서 다시 가지줄기를 펼쳐 보기가 좋은 나무모양을 만들고 있다. 전승하는 이야기는 무단 벌목과 관련하고 있다. 산포리에는 원래 동쪽과 서쪽 양쪽에 큰 나무가 나란히 서 있었다. 동쪽의 것은 양수, 서쪽의 것은 음수라 불렀다. 일제강점기 때이다. 배를 만드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인 커다란 목재를 수탈하는

일이 있었다. 당시에 목재 수탈을 의뢰받은 탁씨 성을 가진 목수가 동쪽의 양수를 베고 난 뒤 며칠 만에 서쪽의 음수를 마저 베려고 하였다. 서쪽의 음수를 자를 때는 세 사람의 목수가 동원되었다. 목수들이 톱질을 시작하자마자 톱이 부러져 산산조각이 났다. 이에 목수들이 놀라 음수를 베어내지 못하고 떠났는데, 목수들은 그 후 몸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얼마 안 있어 죽었다. 탁씨 가족들은 이 마을에서 모두 떠나갔다. 현재 느티나무는 큰 상처 자국이 남아 있는데, 상처 자국은 당시에 나무를 자르려다가 멈춘 톱자국이다. 마을 주민들은 이 느티나무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섬기고 있다. 느티나무가 있는 이곳은 예전에 정자 오른쪽의 쉼터가 더 높고 넓은 동산이었다. 여름이면 아이들이 동산 위에서 뛰어놀고 어른들은 넓은 나무 그늘에서 낮잠을 자며 쉬었던 곳이다. 지금은 느티나무가 있는 곳의 주변이 밭으로 변하여 있다.